

4/4(월) 에스라 묵상 13

에스라 7:11-26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인정을 받고 포로 귀환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닥사스다왕의 조서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조서를 내립니다(12-13상,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이고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의 왕들에게 유명했던 것처럼 에스라도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갔을 때도 바사의 다리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단 6:19-20,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조서에는 이미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 때에 행해졌던 고레스에 의한 1차 포로 귀환 때와 마찬가지로 2차 포로 귀환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유대 포로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데리고 가라. 둘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자들에게 은금과 풍성한 예물을 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규정에 따라 쓸 것을 제공하라. 셋째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세금을 면제하라(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도다.**”). 넷째로, 에스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새로운 행정관과 재판관들을 세울 권한을 주었다(25절,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만 허락해도 대단한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을 그의 권위를 가지고 결코 가만히 놔두지 말라고 말합니다(26절,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은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러한 명령과 도움은 에스라로 하여금 왕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도우심의 은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큰 은혜와 도움을 받게 되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손길을 전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27-28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와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관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와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노라.**”).

에스라의 고백대로 아닥사스다가 선행을 베푼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선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라”). 이는 에스라 6장에서 마치 왕인 자신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던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스 6:10,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대로 에스라는 포로지에서 장차 이루어질 제 2차 포로 귀환을 소망하면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기간은 약 8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바벨론 포로 1세대들은 죽고 난 뒤였습니다. 포로 2세대들은 대부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로 귀환에 대한 열정도 약했을 것입니다. 비록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2차 포로로 돌아간 숫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 날을 꿈꾸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에스라를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까지 바꿔 주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들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장애물까지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한 거룩한 꿈을 꿀 때 우리 앞에 막힌 인간적인 장애물과 어려움을 하나씩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C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인도 임상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